

## 해외리포트

### 이태리 역사도시의 경관디자인을 읽는다



이충훈 | 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역사고도로 지정된 공주시의 고도육성정책 추진에 필요한 선진외국도시의 고도육성 정책 및 기법 과 고도경관조성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2012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 까지(10일간) 공주고도육성포럼에서 이탈리아 로마, 베로나, 피렌체, 베네치아 등 역사도시를 중심으로 답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1. 이탈리아지역 경관 특성

### 1) 지역 경관 특성

남부 이탈리아는 고대 그리스 이래의 오랜 역사를 지니며, 다양한 민족이 교차하여 왔기 때문에 실로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지니고 있다. 개방적인 기후풍토가 옥외공간을 발달하게 하였고, 더욱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밀도 높게 교류하는 전통을 가꾸어 왔다. 석조 건물이 많은 것도 특징적이며, 그것들이 매력 있는 토속적인 거리경관과 취락을 형성해 온 것이다. 남부 이탈리아는 거리경관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다.

남부 이탈리아에서도 근년 들어 오랜 도시나 취락의 수복·재생의 움직임이 볼 수 있게 되고 있다. 어려운 도시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나폴리에서도 최근 20년간의 논란 끝에 겨우 젠트로 스토리코 재생을 위한 행동이 개시되었다.

## 이태리 역사도시의 경관디자인을 읽다

## 2) 역사지구(젠트로 스토리코)의 경관정책

이탈리아의 앞선 지역에서 젤트로 스토리코의 보존·재생은 이미 완전히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매력 있는 도시공간이 앞으로 점점 더 되살아날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역사적 환경의 보호활동은 그 바깥쪽을 향하여 확대되고 있다.

베로나에서는 완만하게 사행하는 아디제강을 따른 수변공간과 강 너머에 펼쳐지는 녹색이 풍성한 구릉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강가에 있는 옛 세관의 남은 건물을 활용하여 카누 클럽이 만들어진다든지, 물가의 산책로가 정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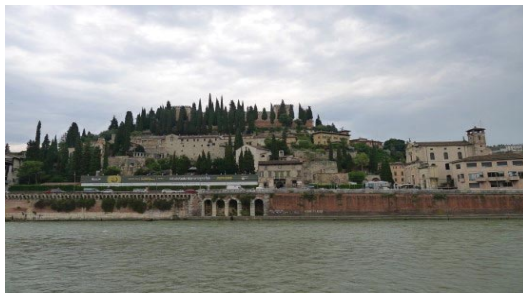
젤트로 스토리코라는 의미는 보통 성벽의 안쪽에 산업혁명 전에 만들어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보호의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경향이 있어, 19세기 후반으로부터 20세기 전반의 건물도 보존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림1-1〉소렌토 해안도시 경관



〈그림1-2〉아말피아 해안도시 포지타노의



〈그림1-3〉베로나 아디제강 언덕 사면 역사유산 지역



〈그림1-4〉베로나 아디제강 너머에 펼쳐진 구릉지

## 2. 이탈리아 경관현황

## 1) 경관현황

‘경관’이라는 말을 이탈리아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70년대 후반이다.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도시 밖에 펼쳐진 지역을 향하고, 자연·전원, 그리고 그 가운데 점재하는 역사

## 해외리포트

적 유산에 이목이 집중하게 되면서, 경관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985년, 경승지나 해안부의 마구잡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칭 '갈랏소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이 제정되어, 풍경계획의 수립이 각 주에 의무사항으로 요구되게 되었다. 1990년 전후에는 많은 주에서 실제로 풍경계획이 만들어지고 승인되었다. 이들의 내용은 당연히 각각의 도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갈색의 지붕이 물결을 이루는 예술도시 피렌체는 가지런한 건물들 사이에서 3개의 건물만이 솟아있다. 피렌체는 봉건제도 아래에서 영지를 받았던 권력자들이 권력의 상징으로 지었던 높은 탑들은 일정한 높이로 절단되었고, 높은 건물은 정치권력의 상징인 베키오 궁전, 종교 권력의 상징인 두오모 성당, 그리고 14세기에 지어진 지오토의 종탑만이 남아있게 되어 역사지구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2-1〉로마 구도심 역사지구경관-건물높이가 일정하게 조성



〈그림2-2〉피렌체 역사지구 경관-두오모 성당 동향건물과 종탑, 메디치궁전만 부각

이탈리아의 역사지구(첸트로 스토리코)에서 건축물의 중개축이나 개보수시에는 유네스코의 심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특히 옥외광고물이나, 색채 등의 규제가 엄격하다. 도시경관을 위해 전체적으로 역사지구에 현대식 건축물은 지을 수가 없다.

역사지구(첸트로 스토리코)에서 오래된 건축물의 중개축시 가림막은 완성된 이미지를 전사하여 설치하고, 그 위에 기업의 대형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그림2-3〉볼로냐 산 페트로니오대성당개보수 가림막 광고



〈그림2-4〉볼로냐 도심지 건물 부착 옥외광고물



## 이태리 역사도시의 경관디자인을 읽다



〈그림2-5〉언덕에서 내려다본 테베레강변 경관



〈그림2-6〉로마 시내의 나무 가로수는 우산고양을 하고 있는 형태로 여름에 더운 지중해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조성하였다

## 2) 시설물

## (1) 도시 문화의 직접적 표현방식 - 간판

로마에도 간판은 있되, 간판이 있다는 느낌이 없다. 거리 상점마다 간판은 있지만 간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탈리아에도 간판과 관련된 법이 광고법 이외에도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등 많은 법이 존재하지만 간판은 기본적으로 크기에 관계없이 사전 허가를 얻어 설치해야 한다.

이때 주변 건물과의 조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빨간색 및 흰색 간판 설치를 규제하고 있으며, 2층 이상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간판의 크기에 따라 간판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 간판에 대해서 엄격하게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렇듯 시 차원에서 간판 정비에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벌금형을 부과한 사례가 드물어 로마의 간판은 로마에 사는 '로마시민'이라는 자긍심에서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상점의 간판은 도시경관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문자형으로 최소화하고, 색채를 중·저채도로 하여 적용하고 있다.

로마의 은행 간판은 도시와 지역 건물의 형태, 건물의 색채에 따라 크기와 서체는 일정하지만 색채를 달리 사용하고 있다. 공공은 공공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일반 상점은 상점대로 자신의 영역에서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고려한 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그림2-7〉건물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된 간판



〈그림2-8〉건물과 조화를 이룬 타이포그래피 간판



〈그림2-9〉고유색을 적용하지 않은 로고 및 간판



〈그림2-10〉지역에 따라 로고색을 달리하여 설치

## 해외리포트

### 3) 건축물

중세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도시가 많은 이탈리아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 역사적 거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정책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에는 보존이 건축적 차원으로 건축물 단위에 그쳤으나, 그것이 인간의 환경을 유지하는 도시정책으로 전환된 것은 1950년대 후반의 경제발전기의 일이다.

이 시대는 이탈리아 건국 이후 최대의 환경파괴 시기이자 최대의 환경보전단체인 ‘이탈리아



〈그림2-11〉 1345년에 건설된 피렌체 베키오 다리 금세공상점



〈그림2-12〉 로마 콜로세움 황제의 거리



〈그림2-13〉 관광객 거리화와 0·2칸에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베니스



〈그림2-14〉 도시의 재생의 성공사례도시 볼로냐



〈그림2-15〉 건물에 설치된 회랑(포르티코)



〈그림2-16〉 포르티코 내부



〈그림2-17〉 볼로냐의 오래된 회랑구조



〈그림2-18〉 스크라비토 건축양식

노스트라(Italia Nostra)가 탄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까지 역사적 지구(街區)의 보존은 주로 문화적 관점에서 추진됐거나 제3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관광산업적인 차원에서 전개돼 일부 도시는 관광객의 거리화해 버리고, 시민 부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베니스이다. 이와는 달리 역사적 기구의 보존 목적을 문화재·관광재 보존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까지 포함하는 도시의 재생으로까지 발전시킨 것은 볼로냐시이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보행자들은 마치 건물 복도를 걷고 있는 듯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포르

## 이태리 역사도시의 경관디자인을 읽다

티코(Portico) 건축양식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도심을 둘러싸고 40여 km 가까이 조성된 포르티코는 햇빛을 가려 주고 겨울철 눈비를 막아준다. 포르티코는 공개공지의 역할을 지닌 공적 공간으로서 볼로냐의 도시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볼로냐 도심에 있는 모든 건물의 1층마다 처마가 보도까지 뻗어 나가 전 시가지를 회랑처럼 구석구석 연결해 주기 때문이다. 아치형의 이 독특한 회랑은 ‘포르티코(주랑·柱廊)’라고 불린다.

도심 전 구역에 조성된 포르티코는 오래된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도심에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사유지의 일부를 개조해서라도 포르티코를 만드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볼로냐의 포르티코는 건물마다 그것이 생겨난 시대의 유행을 반영해 각각 모양이 다르다. 꾸밈없이 소박한 중세풍, 섬세한 고딕풍, 화려한 르네상스 양식, 중후한 바로크풍, 단순한 모양으로 지어진 아케이드까지, 포르티코는 역사 속에 담긴 도시의 발자취를 하나의 길로 연결하는 동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볼로냐의 건축물은 스크라비토 양식으로 단장한 건물이 일부 볼 수 있는데, 이 양식의 건축물들은 평면적 공간을 입체적 공간으로 착시하도록 유도하는 특수하게 건축된 미학적 건물이다.

#### 4) 가로공간

##### (1) 가로

가로의 중심에 배수로를 깊지 않게 설치하여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가로 바닥패턴과의 일체된 디자인을 유도하고 있다.

역사도시임을 부각하며, 이를 이용하여 가로에서의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도록 하며, 가로에 면한 건물입면의 재질 및 색상에 통일감을 주어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창문 난간은 벽면 녹화를 이루고 있으며,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도시 곳곳에 특색있는 디자인의 안내지도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그림 2-19〉 로마 산탈레시온 공원



〈그림 2-20〉 포로 로마노 광장 공원



## 해외리포트

### (2) 공원, 광장

공원은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하고,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을 높이도록 조성하였다.

고대 로마시대에 광장은 정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공간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광장은 시민들의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공공장소로서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광장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은 소규모 상점이 들어서 있다.



〈그림 2-21〉 베로나 에르메 광장- 주위를건물로 둘러싸고 있음



〈그림 2-22〉 에르메 광장과 연결된 골목길 상점

## 5) 공공시설물

### (1) 버스승강장

도시경관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스테인리스스틸과 투명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경관과 가로시설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기능주의적이며, 심플한 형태를 적용하고 있다.



〈그림 2-23〉 기능성을 높인 버스정류장



〈그림 2-24〉 투명소재를 사용한 사례

### (2) 휴지통

휴지통을 벤치와 같은 장소에 설치하고 있다.

가로변에 설치된 휴지통은 르네상스양식의 형태를 나타내며 가로등과 같은 소재자체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 이태리 역사도시의 경관디자인을 읽다



〈그림 2-25〉 장식적인 문양을 적용한 휴지통



〈그림 2-26〉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컬러별로 구분하여 설치

## 6) 색채

도시건축적, 구성적 컨셉은 지역 특징적인 재료들이 사용되어진다. 지역 특징적 색깔은 광장에 지배적이고 전형적인 오래된 도시의 색을 조성하게 된다. 기준은 역사적 모범에서 도출된 것이다. 색의 컨셉에는 수많은 출처가 있다. 그것에는 도시정경 뿐 아니라 폐허속에 발견된 건물 조각들도 포함된다. 도시의 건축물은 주황색 자붕또는 회색색상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으며, 건물 입면의 색채는 GY, YR 계열로서 암갈색, 노랑색, 주황색 등을 나타내고, 중 저채도의 도시이미지를 차별하게 만들어 준다.

도시마다 약간의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베니스는 짙은 자주빛 색채가 도시의 상징으로 되어있다.

건물 전면 상가의 파사드 부분은 강조색을 사용하여 차별화하고 있으며, 바로크양식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프레스코 문양이 도시의 다양한 색상을 보여준다.



〈그림 2-27〉 고대로마도시 오스티아 유적지 건축물 색채



〈그림 2-28〉 고대도시 오르비에토 지역의 건물의 색채



## 해외리포트



〈그림 2-29〉 로마사네 건축물의 YR, R계열



〈그림 2-30〉 암갈색의 베니스 건축물



〈그림 2-31〉 16세기 프레스코화를 적용한 베로나시 건축물



〈그림 2-32〉 오르비토 석재를 이용한 도시건축물 색채

### 참고자료

1. 오카와 나옴이, 도시의 역사와 거리만들기, 학예출판사
2. 이탈리아 고도육성 사례조사,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12